

박진경 대령 연대장 재임 기간(1948.5.6.~6.18) 사건 일지¹⁾

□ 濟民日報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제3권, 서울: 도서출판 전예원, 1995, 419쪽-428쪽

- ☞ 박진경 대령 작전 중 총 **작전 중 14명 사살**, 6월 3일 **11명 게릴라 사살**은 경찰과 경비대가 합동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므로 경비대 단독의 사살 숫자 파악은 제한됨.
- ☞ 반면 무장대(인민 유격대)는 박진경 대령 제주도 재임 기간에만 무고한 주민과 우익 인사 등 **총 70명 사살**

- ☞ 이러한 상황에서 박진경 대령은 누가봐도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정상적인 토벌작전(대 유격작전)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임.

□ 박진경 대령 재임기간 조선경비대 작전 중 사살자 종합

- **5월 14일** 경비대, 송당(松堂)리와 교래(橋來)리 사이의 울창한 숲지역에서 소탕작전을 전개, 21일까지 유격대 **7명을 사살**하고 여자 21명을 포함한 포로 200명을 체포²⁾
- **5월 16일** 경비대, 제주읍 오등리·오라리 주변 수색 작전 중 **1명 사살**, 166명 체포³⁾
- **5월 31일** 경비대, 대정면 무장대 아지트 급습. 포로 10명, **사살 2명**⁴⁾
- **6월 3일** 24시간 동안 경비대·경찰 합동 토벌작전 전개해 **게릴라 11명** 사살⁵⁾
- **6월 14일**, 6월17일 게릴라 **4명 사살**, 53명 체포⁶⁾

1) 濟民日報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제3권, 서울: 도서출판 전예원, 1995, 419쪽-428쪽.

2) 「G-2보고서」, 1948. 5.24.

3) 「G-2보고서」, 1948. 5.21.

4) 『東亞日報』, 1948. 6. 9.

5) 「G-2보고서」, 1948. 6. 5.

6) 「G-2보고서」, 1948. 6.15.

□ 무장대(인민유격대) 사살자 종합

- **5월 9일**, 구좌면 당송리 구장의 부인 등 2명이 무장대에 의해 피살. 한림(翰林)면 금악(今岳) 선거관리위원장인 국민학교 교장과 대청 단원 등 2명 피살.⁷⁾ 제주읍 도두리에서 입산을 거부하던 청년 피살 등 **총 5명 피살**.
- **5월 10일**, 표선면 가시리 투표소 피습. 국민학교 교장과 이장 피살.⁸⁾ 성산면 수산리 투표소 피습. 투표소에 나왔던 여인 3명 달아나다 무장대의 총탄에 맞아 사망.⁹⁾ 중문면 상예 2리에서 대청 단장 부부와 국민회 회장 등 3명 납치돼 피살.¹⁰⁾ **총 8명 피살**.
- **5월 11일** 제주읍 도두(道頭)리에서 선거관리위원장과 대청 단장 등 3명 산쪽에 의해 납치 피살.¹¹⁾ 무장대에 의해 우익가족 2명 피살. **총 5명 피살**.
- **5월 12일** 경찰관에게 돼지고기를 팔았던 식육 장수 부부 피살. **총 2명 피살**.
- **5월 13일** 경찰관 4명 피살, 경찰관 가족 1명 피살.¹²⁾ 한림면 저지(權旨) 마. 경찰관 1명과 경찰후원회장 아버지 등 우익가족 3명이 피살.¹³⁾ **총 8명 피살**.
- **5월 14일** 경찰관 1명, 무장대 4명 피살.¹⁴⁾ 한림면 명월리 과거 면장 역인 임창현(任昌鉉)과 그 가족 등 4명, 한림면사무소 직원 3명, 농민 1명 등 모두 8명이 무장대에 의해 납치 살해.¹⁵⁾ 우익 진영 가족 3명이 피살. 제주읍 도두리에서 선거관리위원 부자 납치 살해¹⁶⁾. **총 13명 피살**.
- **5월 18일** 제주읍 도두리에서 우익가족 부녀자 등 6명, 무장대에 의해 납치살해. 그 여자들 중한 사람이 죽창에 찔려 초죽음 상태에서 극적으로 생환했으나 3일 만에 숨짐.¹⁷⁾ 대정면 영락리에서 경찰관 가족 4명, 무장대에 의해 납치, 살해.¹⁸⁾ **총 10명 피살**.
- **5월 20일** 9연대 탈영병(좌익계열 장병) 소속 군인 41명, 모슬포 부대에서 무기와 장

7) 강종표의 증언

8) 「G-2보고서」, 1948. 5.11

9) 김한석의 증언

10) 오형승의 증언

11) 김정기의 증언

12) 『濟民日報』, 1993. 8.17.

13) 『濟民日報』, 1993. 8.20.

14) 『濟民日報』, 1993. 8.31., 9.10.

15) 임문국, 진성직의 증언

16) 김택희의 증언

17) 『濟民日報』, 1993. 9.28.

18) 신계출의 증언

비, 탄약 5,600발을 갖고 탈영, 무장대에 가담. 탈출병들은 대정지서 습격해 경찰관 4명, 급사 1명 사살.¹⁹⁾ **총 5명 피살.**

- **5월 22일** 안덕면 상창·창천리에서 무장대에 의해 우익인사 **3명 피살**²⁰⁾
- **5월 25일** 서귀면 서흥리가 무장대의 공격을 받고 주민 3명이 피살.²¹⁾ 대정면 신평리에서 경찰관 1명 피살²²⁾. **총 4명 피살.**
- **5월 27일** 구좌면 하도리에서 무장대에 의해 우익인사 **4명 피살**²³⁾
- **6월 10일** 서귀면 한 마을에서 대청단원 **1명 피살**²⁴⁾
- **6월 16일** 조천면 북촌 포구에 피항차 들어갔던 우도지서 주임 등 경찰관 **2명**, 좌익 청년에 붙잡혀 **피살**.²⁵⁾

□ 일자별 작전 일지²⁶⁾

범례 : **조선경비대** **응원·경찰** **무장대(유격대)**

- 1948년 5월 6일
 - 김익렬 연대장 전격 해임. 후임 연대장에 박진경 중령 부임. **딘 군정장관, 박 연대장에게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해 반란을 진압하라는 밀명을 내림.** 미군정, 수원에서 창설된 11연대 1개 대대 제주에 파병 명령²⁷⁾
 - 귀경한 딘 군정장관, 외지인들의 선동에 의해 제주 폭동이 일어났다고 발표, 또 ‘재의 제주도 분위기는 평온하며 경찰과 경비대가 협력, 활동하고 있다’ 고 사실을 왜곡²⁸⁾
 - **모슬포에서 지서 습격받았으나 경찰의 반격으로 공격자 1명 사살됨**²⁹⁾
 - **조천 지서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군정재판(재판장 매로 소령)에서 관련 경찰관 5명에게 징역 3~5년의 실형 선고**³⁰⁾

19) 「G-2보고서」, 1948. 5.24. 『濟民日報』, 1993. 3.15.

20) 『濟民日報』, 1993. 9. 9.

21) 「G-2보고서」, 1948. 5.27.

22) 22) 「G-2보고서」, 1948. 5.27.

23) 『濟民日報』, 1994. 9.27.

24) 「G-2보고서」, 1948. 6.12.

25) 『濟民日報』, 1994.10. 4.

26) 濟民日報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제3권, 서울: 도서출판 전예원, 1995, 419쪽-428쪽.

27) 존 메릴, 「제주도 반란」, 175쪽

28) 『동아일보』, 1948년. 5. 7.

29) 「G-2 보고서」, 1948. 5. 9.

30) 『조선일보』, 1948. 5. 9.

○ 5월 7일

- 조천면 지역에서 선거관리위원 50%가량이 사임³¹⁾
- 미군 독려반, 투표함 배치업무가 부진하다고 역정을 내며 조천면장 위협³²⁾ 김민규의 증언
- 제주읍을 비롯해 조천, 구좌, 애월, 한림면 주민들, 선거를 거부하기 위해 대거 산행³³⁾
- 애월(涯月)면 장전(長田)리에서 **응원경찰대가 쏜 총탄에 농민 1명 사망, 국민(초등)학생 등 3명 중상**³⁴⁾

○ 5월 8일

- 조병옥(趙炳玉) 경무부장, '제주도사건의 치안수습대책 발표' 당면대책으로 ① 경찰전문학교 정예부대 제주 파견 ② 유능 형사대 파견을, 영구대책으로 ① 제주 경찰학교 강화 ② 경찰인사 재편 ③ 경찰정원 증원, 2개 경찰서 신설계획을 천명³⁵⁾
- 제주읍 오등리에서 **무장대의 습격받고 우익가족 10여 명 사상**³⁶⁾
- 군정관리들이 북제주군 50% 지역에서 선거자료 분배를 지원³⁷⁾

○ 5월 9일

- UP통신, 5·10선거 앞두고 남한의 상황은 내전을 방불케하는 분위기며 '그리스 사태의 완전한 재연' 이라고 타전.³⁸⁾
- 구좌면 당송리에서 구장의 부인 등 2명이 **무장대에 의해 피살. 우익가족 민가 5채 방화**.³⁹⁾
- 한림(翰林)면 금악(今岳) 선거관리위원장인 국민학교 교장과 대청 단원 등 2명 **피살**.⁴⁰⁾
- 제주읍 도두리에서 **입산을 거부하던 청년 피살**⁴¹⁾

○ 5월 10일 (5.10. 총선거 일)

- 표선면 가시리 투표소 피습. **국민학교 교장과 이장 피살**⁴²⁾

31) 「G-2보고서」, 1948. 5.11

32) 김민규의 증언

33) 『濟民日報』, 1993. 6. 29.

34) 고남택, 강종화 증언

35) 『京鄉新聞』, 1948. 5. 9.

36) 「G-2보고서」, 1948. 5. 8.

37) 「G-2보고서」, 1948. 5.11.

38) 『동아일보』, 1948년. 5.10.

39) 『濟民日報』, 1993.10. 5.

40) 강종표의 증언

41) 윤태백의 증언

- 성산면 수산리 투표소 피습. 투표소에 나왔던 여인 3명 달아나다 무장대의 총탄에 맞아 사망⁴³⁾
- 중문면 상예 2리에서 대청 단장 부부와 국민회 회장 등 3명 납치돼 피살⁴⁴⁾
- 무장대에 의해 우익가족 2명 피살, 가옥 7채 불타⁴⁵⁾
- 안덕면 창천리 대청 부단장이 무장대로 오인돼 경찰에 의해 사살됨⁴⁶⁾
- 제주읍사무소 부근에 다이너마이트 2개가 폭발했으나 사상자는 없음⁴⁷⁾
- 안덕면 상천리 등 도내 곳곳에서 무더기 대리투표⁴⁸⁾

○ 5월 11일

- 전국 200개 선거구 가운데 제주도 북제주군 갑구(투표율 43%), 북제주군 을구(투표율 46.5%) 등 2개 선거구만 과반수 투표 미달사태 초래. 전국투표율 94.9%. 제주도 전체 투표율은 62.8%⁴⁹⁾
- 제주도 군정장관, 섬의 봉쇄를 위해 2척의 구축함과 게릴라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전투기를 제주 상공에 보내줄 것을 요청. 미군함 '크레이크'호 등이 출동, 북부해안 봉쇄⁵⁰⁾
- 미군 정보보고서, 7~11일 5일간 경찰 8명, 후보 1명, 선거위원 4명, 우익 29명, 폭도 50명 등 모두 92명이 사망했다고 기록. 제주도의 인명피해는 경찰 1명, 우익 14명, 폭도 21명 등 36명으로 기록⁵¹⁾
- 제주읍 도두(道頭)리에서 선거관리위원장과 대청 단장 등 3명 산쪽에 의해 납치 피살⁵²⁾

○ 5월 12일

- 박진경 중령의 9연대, 본격적인 수색작전 착수해 첫날 제주읍 오등리와 애월면 광령(光寧)2리 에서 218명 체포⁵³⁾
- 경찰, 애월면 하귀리에서 주민 4명 연행 사살⁵⁴⁾
- 조천면 조천리에서 경찰관에게 돼지고기를 팔았던 식육장수 부부 피살⁵⁵⁾

42) 「G-2보고서」, 1948. 5.11

43) 김한석의 증언

44) 오형승의 증언

45) 김경수의 증언

46) 『濟民日報』, 1993. 7. 9.

47) 「G-2보고서」, 1948. 5.10.

48) 『濟民日報』, 1993. 7. 13.

49) 『朝鮮日報』, 1948. 5.20., 『濟民日報』, 1993. 7.20.

50) 존 메릴, 「제주도 반란」, 172쪽

51) 「G-2보고서」, 1948. 5.14.

52) 김정기의 증언

53) 「G-2보고서」, 1948. 5.12., 5.14.

54) 조재익의 증언

55) 한동엽의 증언

○ 5월 13일

- 함덕 지서, 대낮에 술파티 도중 무장대 기습받아 경찰관 4명 숨지고 3명 납치, 납치된 경찰관들도 나중에 지경에서 시체로 발견. 지서 건물 전소, 경찰관 가족 1명 피살⁵⁶⁾
- 한림면 저지(楮旨) 마을이 무장대의 습격을 받고 민가 1백여채 불타. 경찰관 1명과 경찰후원회장 아버지 등 우익가족 3명이 피살⁵⁷⁾

○ 5월 14일

- 경비대, 송당(松堂)리와 교래(橋來)리 사이의 울창한 숲지역에서 소탕작전을 전개, 21일까지 유격대 7명을 사살하고 여자 21명을 포함한 포로 200명을 체포⁵⁸⁾
-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송당리 주민 10명이 경비대에 끌려간 뒤 행방불명⁵⁹⁾
- 경찰, 애월리 광령(光寧)리 일대에서 25명 체포. 그 일대에 주민 2,000여명이 피신해 있는 것을 발견, 귀가조치 시킴⁶⁰⁾
- 무장대 100여명, 한림지서 기습. 지서의 응전과 응원경찰대의 반격으로 무장대 퇴각. 이 전투로 경찰관 1명, 무장대 4명 사망⁶¹⁾
- 한림면 명월리에서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임창현(任昌鉉)과 그 가족 등 4명과 한림면사무소 직원 3명, 농민 1명 등 모두 8명이 무장대에 의해 납치 살해됨⁶²⁾
- 한림면 상명리에서 경찰관 아버지의 집이 불타⁶³⁾
- 한림면 금악(今岳)리에서 대청(대동청년단) 부단장 등 우익 진영 가족 3명이 피살. 무장대, 우익진영 민가 7채 방화⁶⁴⁾
- 제주읍 도두리에서 선거관리위원 부자 납치 살해⁶⁵⁾

○ 5월 중순

- 미 20연대장 브라운 대령, 제주지역 미군사령관으로 부임. 현지 진압작전 최고 지휘권 행사⁶⁶⁾

○ 5월 15일

- 무장대의 습격을 받았던 한림면 저지(楮旨) 지서에 응원경찰대 40명 파견주둔. 무

56) 『濟民日報』, 1993. 8.17.
57) 『濟民日報』, 1993. 8.20.
58) 「G-2보고서」, 1948. 5.24.
59) 『濟民日報』, 1993.10. 5.
60) 「G-2보고서」, 1948. 5.15.
61) 『濟民日報』, 1993. 8.31., 9.10.
62) 임문국, 진성직의 증언
63) 「G-2보고서」, 1948. 5.21.
64) 김임후의 증언
65) 김택희의 증언
66) 『濟民日報』, 1993. 8. 6.

차별 토벌로 인근 주민들 피해 속출. 금악(今岳)마을에서는 국민학생인 어린이를 목매달아 고문⁶⁷⁾

○ 5월 16일

- 경비대, 제주읍 오등리 오라리 주변 수색 작전중 1명 사살, 166명 체포⁶⁸⁾

○ 5월 18일

- 국회선거위원회, 단 군정장관에게 과반수 투표 미달된 북제주군 갑·을구 2개 선거구의 선거무효 선언을 건의⁶⁹⁾
- 제주에 급파되는 철도경찰관 수백 명과 수도경찰청 최란주(崔蘭誅)경감이 인솔하는 특별수사대 수십 명을 태운 특별열차가 서울역을 출발⁷⁰⁾
- 조병옥(趙炳玉) 경무부장, 제주도폭동 진압차 정예부대 파견했다면서 “그동안 귀순 회오 반성을 기다리던 소극적인 대책을 떠나 이번에는 실력으로써 적극적으로 폭도들을 진압섬멸할 방침” 이라는 담화를 발표⁷¹⁾
- 제주읍 도두리에서 우익가족 부녀자 등 6명, 무장대에 의해 납치살해. 그 여자들 중한 사람이 죽창에 찔려 초죽음 상태에서 극적으로 생환했으나 3일 만에 숨짐⁷²⁾
- 대정면 영락리에서 경찰관 가족 4명, 무장대에 의해 납치, 살해⁷³⁾

○ 5월 20일

- 9연대 소속 군인 41명, 모슬포 부대에서 무기와 장비, 탄약 5,600발을 갖고 탈영, 무장대에 가담. 이들 탈출병들은 대정지서 습격해 경찰관 4명, 급사 1명 사살⁷⁴⁾
- 세칭 '도두봉 사건' 발생. 도두마을을 덮친 토벌대가 현지 주민 10명 학살⁷⁵⁾

○ 5월 21일

- 경찰, 제주읍 도두리 수색해 유격대 2명 부상입히고 2명 생포⁷⁶⁾
- 애월면 하귀리에서 유격대 4명이 경찰에 의해 사살⁷⁷⁾
- 표선면 표선리에서 유격대 4명, 민간인 1명 사망⁷⁸⁾
- 제주읍 오등리에서 경찰 작전으로 유격대 4명이 죽고 1명이 체포됨⁷⁹⁾

67) 『濟民日報』, 1993. 8.24., 고익조의 증언

68) 「G-2보고서」, 1948. 5.21.

69) 『東亞日報』, 1948. 5.27.

70) 『朝鮮日報』, 1948. 5.18.

71) 『東亞日報』, 1948. 5.19

72) 『濟民日報』, 1993. 9.28.

73) 신계출의 증언

74) 「G-2보고서」, 1948. 5.24. 『濟民日報』, 1993. 3.15.

75) 『濟民日報』, 1993. 9.23.

76) 「G-2보고서」, 1948. 5.22.

77) 「G-2보고서」, 1948. 5.25.

78) 「G-2보고서」, 1948. 5.25.

○ 5월 22일

- 9연대에서 탈영한 41명중 20명이 모슬포 부근에서 체포, 소총 19정과 탄약 3,500발 회수⁸⁰⁾
- 경찰, 애월면 하귀리에서 농부끼리 장난 싸움시킨 뒤 1명을 사살⁸¹⁾
- 안덕면 상창·창천리에서 무장대에 의해 우익인사 3명 피살⁸²⁾

○ 5월 23일

- 경비대, 포로 432명에 대한 심문⁸³⁾
- 경찰, 한림면 고산리에서 유격대 3명 사살⁸⁴⁾
- 중문면 도순리에서 무장대가 마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무장대 15명, 민보단 단원 1명, 민간인 1명이 죽고 대동청년단 단원 1명 납치⁸⁵⁾
- 중문면 상예(上猊)·색달(穢達)리에서 무장대에 의해 주민 2명 납치 살해됨⁸⁶⁾

○ 5월 24일

- 오라리 방화사건 혐의자로 모슬포 부대 영창에 구금됐던 대동청년단 단원, 박진경 연대장이 석방⁸⁷⁾
- 남원면사무소가 불타⁸⁸⁾
- 대정면 무릉리 '빛개소년'이 경찰에 의해 사살⁸⁹⁾
- 던 군정장관, 제주도 2개 선거구에 대해 선거무효 선언. "선거법 제44조에 의해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제주도의 재선거는 사태의 악화로 6월에 실시되지 못한 채 재연기, 1년 후인 1949년 5월 10일에 시행됨)⁹⁰⁾

○ 5월 25일

- 경찰, 좌익혐의자를 잡기 위해 새벽에 제주읍 내 모든 집을 수색, 8명 체포⁹¹⁾
- 대정면 무릉리를 덮친 응원경찰에 의해 마을주민 8명 사살⁹²⁾
- 애월면 하귀리 가문동을 급습한 토벌대, 주민들을 상대로 고문하다가 3명 사살⁹³⁾

79) 「G-2보고서」, 1948. 5.25.

80) 「G-2보고서」, 1948. 5.26.

81) 강종규의 증언

82) 『濟民日報』, 1993. 9. 9.

83) 「G-2보고서」, 1948. 5.28.

84) 「G-2보고서」, 1948. 5.24.

85) 「G-2보고서」, 1948. 5.26.

86) 오선범의 증언

87) 박모의 증언

88) 「G-2보고서」, 1948. 5.27.

89) 김주문의 증언

90) 『東亞日報』, 1948. 5.27.

91) 「G-2보고서」, 1948. 5.27.

92) 『濟民日報』, 1994. 8.30.

- 서귀면 서흥리가 무장대의 공격을 받고 주민 3명이 죽고 3명이 부상⁹⁴⁾
- 대정면 신평리에서 경찰관 1명 피살⁹⁵⁾
- 제주경비사령부, 4월 3일 이후 5월 25일까지의 인명피해 상황 발표. 사망은 경찰관 23명, 경찰관 가족 13명, 양민 2명, 관공리 3명, 폭도 119명. 부상자는 경찰관 29명, 경찰관 가족 2명, 양민 65명, 관공리 6명, 폭도 8명⁹⁶⁾
- 남로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력인민』에 제주봉기 상황 처음으로 게재⁹⁷⁾

○ 5월 26일

- 경찰, 애월면 하귀리 학원동에서 70대 노인 등 3명 사살⁹⁸⁾
- 응원경찰대, 중문리 상예(上猊)·하예(下猊)리에서 주민 4명 총살⁹⁹⁾
- 4. 3 가담자 재판을 위해 서울에서 판·검사 일행 12명 제주에 음. 군법회의 주심은 매로 소령이 맡음¹⁰⁰⁾

○ 5월 27일

- 최천(崔天) 제주비상경비사령관,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과 회담한 후 ①절단된 전주 복구 부락별로 할 것 ②1948년 하곡수집 철폐 ③ 하산자는 관용포섭한다는 3개항 발표¹⁰¹⁾
- 제주과견을 거부한 철도경찰청 장만호 경사 등 경찰관 8명을 군정재판에 회부, 집행유예 선고¹⁰²⁾
- 류동열(柳東悅) 통위부장, 육해 경비대가 제주 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한 결과 5월 27일까지 포로 3,12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¹⁰³⁾
- 경찰중대, 대정면에서 5명 사살¹⁰⁴⁾
- 구좌면 하도리에서 무장대에 의해 우익인사 4명 살해¹⁰⁵⁾

○ 5월 28일

- 경비대,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는 산악소탕작전 전개¹⁰⁶⁾
- 제주도지사 류해진(柳海辰)해임, 후임에 제주출신 임관호(任琯鎬)(제주도 산업국

93) 김석중의 증언

94) 「G-2보고서」, 1948. 5.27.

95) 「G-2보고서」, 1948. 5.27.

96) 『朝鮮日報』, 1948. 5.29.

97) 『노력인민』, 1948. 5.25.

98) 고창희의 증언

99) 『濟民日報』, 1994. 9. 9.

100) 『朝鮮日報』, 1948. 5. 9. 『新天地』, 1948년 7월호

101) 『朝鮮日報』, 1948. 6. 3.

102) 『朝鮮日報』, 1948. 5.29.

103) 『東亞日報』, 1948. 6. 5.

104) 「G-2보고서」, 1948. 5.29.

105) 『濟民日報』, 1994. 9.27.

106) 「G-2보고서」, 1948. 6. 4.

장) 임명¹⁰⁷⁾

○ 5월 29일

- 한림면 상명리를 급습한 응원경찰대, 주민끼리 뺨때리기 등 고문을 하다가 10명 학살¹⁰⁸⁾

○ 5월 30일

- 한림면 청수리를 덮친 응원경찰대, 주민 모두 옷 벗겨 성적 회롱하다가 4명 총살했으나 2명 기적적으로 총상만 입고 생환¹⁰⁹⁾
- 응원경찰대, 구좌면 하도리 주민 6명 연행 사살¹¹⁰⁾

○ 5월 말

- 미군정, 탈영사건 일으킨 9연대 해체시키고 제주도 토벌부대로 11연대 재편¹¹¹⁾

○ 5월 31일

- 경비대, 대정면 무장대 아지트 급습. 포로 10명, 사살 2명¹¹²⁾
- 서울 법조인에 의한 4.3가담 혐의자에 대한 첫 공판이 제주지방법심리원 법정에서 개정¹¹³⁾

○ 6월 1일

- 11연대장 박진경 중령, 대령으로 진급. 딘 장군이 직접 제주에 와서 계급장 달아줌¹¹⁴⁾
- 경찰, 안덕면 상천리에서 6명 사살했으며 애월면 증산간지대에서는 10분간의 교전 끝에 게릴라 2명 사살¹¹⁵⁾

○ 6월 2일

- 유동열 통위부장, 제주도사태 경비대의 전과에 대해 발표, '폭도에게 준 피해' 포로 3,126명, 사망자 7명, 유기시체 1명, 철모 17, 죽창 12, 99식 소총 3, 수류탄 5, 청룡도 5개 노획. '아군의 피해'는 부상자 5명¹¹⁶⁾
- 경비대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소탕작전 전개. 체포자 596 명

107) 『제주통계연보』(1992), 428쪽

108) 『濟民日報』, 1994. 9.13.

109) 좌봉의 증언

110) 부남석의 증언

111) 『濟民日報』, 1994. 9.13.

112) 『東亞日報』, 1948. 6. 9.

113) 『朝鮮日報』, 1948. 6. 4.

114) 『陸士卒業生』, 124쪽

115) 「G-2보고서」, 1948. 6. 4.

116) 『朝鮮日報』, 1948. 6. 3.

중 427명 심사 완료¹¹⁷⁾

- 경찰은 서귀면 서흥리에서 게릴라 3명 사살¹¹⁸⁾

○ 6월3일

- 24시간동안 경비대·경찰 합동 토벌작전 전개해 게릴라 11명 사살¹¹⁹⁾

○ 6월 5일

- 『朝鮮日報』, '제주사태 수습에 관하여' 제하의 장문의 사설을 통해 민심수습의 길 촉구¹²⁰⁾

○ 6월 7일

- 저지서 토벌대는 한림면 금악리에서 불구소년 1명과 노인 1명, 부녀자 7명을 체포 호송하던 중 남자 2명과 부녀자 3명 총살. CIC 보고에 의하면 이들 경찰대와 민보단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고 있음¹²¹⁾

○ 6월10일

- 단 군정장관, 48년 6월 23일에 시행하려던 북제주 갑·을구 선거구의 국회의원 재선거를 무기연기한다는 성명 발표¹²²⁾
- 서귀면 한 마을에서 대청단원 1명 피살¹²³⁾

○ 6월11일

- 경찰 60명이 제주은 도두리를 기습, 게릴라 11명을 체포하고 1명 사살¹²⁴⁾
- 서울법조인들 제주를 떠남. 귀경 즉시 제주도사태의 원인에 대해 경찰·서청·관공리의 잘못도 있다는 발언을 하기 시작함¹²⁵⁾

○ 6월 12일

- 『朝鮮日報』, 경비대와 경찰에 체포된 자 약 6,000명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¹²⁶⁾
- 애월면 장전리에서 세칭 '단오절 사건' 발생. 마을 소탕작전을 벌인 응원경찰대에 의해 주민 10명 사살¹²⁷⁾

117) 「G-2보고서」, 1948. 6. 4.

118) 「G-2보고서」, 1948. 6. 4.

119) 「G-2보고서」, 1948. 6. 5.

120) 『朝鮮日報』, 1948. 6. 5.

121) 「G-2보고서」, 1948. 6.11.

122) 「G-2보고서」, 1948. 6.12.

123) 「G-2보고서」, 1948. 6.12.

124) 「G-2보고서」, 1948. 6.12.

125) 『新天地』, 1948년 7월호

126) 『朝鮮日報』, 1948. 6.12.

127) 『濟民日報』, 1994. 9.30.

- 저지 지서 경찰은 한림면 금악리에서 유격대 집단과 조우, 교전 끝에 게릴라 3명 사살, 경찰 3명 부상¹²⁸⁾
- 저지지서 경찰관 31명, 지난 7일 금악리에서 노인·부녀자 등 5명 살해한 데 참여했음을 시인 체포됨, 지서장과 면장도 이 사건과 연루돼 체포된 상태¹²⁹⁾
- 조선신문기자회, '미군정이 제주도 작전에 일본군인 투입시켰다' 는 풍문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지 중장에게 공개질의서 제출¹³⁰⁾

○ 6월 14일

- 경비대는 어승생악 부근에서 유격대 물자공급지점 발견. 최근 경비대의 작전 결과 게릴라 4명 사살, 53명 체포¹³¹⁾
- '미군정 이인(李仁) 검찰총장, 제주도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관공리의 부패상 지적. 그는 사태해결 방안으로 “사법·행정·경찰의 수뇌부를 양심적이고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고 주장¹³²⁾

○ 6월 16일

- 조천면 북촌 포구에 피항차 들어갔던 우도지서 주임등 경찰관 2명, 좌익청년에 붙잡혀 피살. 다른 승객 13명도 산쪽에 납치됐으나 토벌대의 구출작전에 의해 무사 귀환¹³³⁾

○ 6월 17일

- 경비대는 제주도에서 작전명령 제4호 완료. 53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중 4명이 탈주하려다 사살당함. 이 작전에서 2톤 가량의 잡용품 노획. 지휘자는 산에서의 작전은 완료된 것으로 믿고 있다.¹³⁴⁾
- 제주경찰감찰청장에 제주 출신 김봉호(金鳳昊) 총경 발령¹³⁵⁾

○ 6월 18일

- 새벽 3시 15분께 제11연대장 차용 대령, 숙소에서 취침중 M-1소총 총탄에 피살. CIC와 CID, 전 장병 대상으로 총기검사 실시¹³⁶⁾
- 낮 12시께 급거 제주도에 내려온 딘 군정 장관, 암살범 검거에 총매진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뒤 저녁 7시께 박 대령의 시신을 신고 귀경¹³⁷⁾

128) 「G-2보고서」, 1948. 6.12.

129) 「G-2보고서」, 1948. 6.13.

130) 『朝鮮日報』, 1948. 6.15.

131) 「G-2보고서」, 1948. 6.15.

132) 『서울신문』, 1948. 6.17.

133) 『濟民日報』, 1994.10. 4.

134) 「G-2보고서」, 1948. 6.18.

135) 『東亞日報』, 1948. 6.19.

136) 『濟民日報』, 1994.10.18.

137) 『東亞日報』, 1948. 6.20.

- 경찰, 애월면 하귀리에서 게릴라 1명 사살¹³⁸⁾
 - 경찰, 문중면 하원리를 습격한 게릴라와 교전 끝에 1명 사살¹³⁹⁾
- 1948년 8월 경비대 군기감본부에서 군범회의 개최

138) 「G-2보고서」, 1948. 6.22.

139) 「G-2보고서」, 1948. 6.25.